

“말로만 예향 광주” 초라한 문화활동

■ '2012년 문예연감' 7개 분야 점검

전시 6위·연극 10위... 문화도시 지향 무색 전남, 국악 제외 나머지 활동 전국 하위권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열린 문화 활동은 얼마나 될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펴낸 '2012 문예연감'에 드러난 광주·전남의 문화 현주소는 초라하다. '예향'이라는 명칭이,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한다는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2012 문예연감'에 나타난 지난해 문화·시각예술·국악·양악·연극·무용·북한문화 등 7개 분야의 흐름을 점검했다.

◇시각예술, '광주비엔날레' 개최 도시 맞나=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이뤄진 전시회는 모두 1만3884건으로, 미술 시장 전체에도 불구하고, 2007년(9606건) 이후 꾸준한 증가세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 열린 전시회는 523건으로, 서울(7268건), 경기(1075건), 대구(896건), 대전(746건), 부산(599건)에 이어 6번째에 머물고 있다. 지난 1995년 이후 행사 때마다 수십만명의 관람객을 불러들이며 국내 및 아시아 미술계의 간판으로 위상을 확고히 수립한 비엔날레 개최 도시라는 게 무색하다.

전남은 더하다. 지난해 22개 시·군에서 열린 전시회가 107건이 전부로, 16개 시·도 중 울산(47건), 충남(85건)을 제외하면 최하위다.

◇클래식 불모지, 언제쯤 벗어날까=광주·전남은 공연계가 기피하는 대표적인 클래식 공연 불모지로 꼽혀왔다. 유명 연주자들이나 단체의 공연을 보는 기회도 흔치 않다. 문예연감에 드러난 수치도 뒷받침한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열린 클래식 공연은 모두 215건. 서울(3037건)을 제쳐놓고라도 비슷한 규모의 전북(361건), 대전(275건)보다도 못하다.

전남도 비슷하다. 지난해 도내 190만 주민들을 위해 열린 공연 138건은 인구 58만명의 제주에서 열린 공연 건수(170건)에 훨씬 못 미친다.

인구 10만명당 공연 건수도 광주는 14.7건으로 8위, 전남은 7.2건으로 12위로 나타났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대전(18.1건·5위), 전북(19.3건·3위)보다 못하다. 오히려 광주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17.0건·6위)보다도 낮아 열악한 문화계 기반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다만, 2010년 94건에 불과했던 광주의 클래식 공연이 지난해 215건으로 급증한 것은 눈길을 끈다.

◇연극·뮤지컬·무용도 열악=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전체 연극 공연 건수는 119건(10위), 전남은 135건(8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한 공연당 평균 8.3회의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반면, 전남에서는 2.3회에 그쳤다. 다만, 두 지역 모두 최근 3년간 연극 공연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르별로는 광주·전남 모두 뮤지컬 공연 건수가 많았다.

'무향'을 지향하는 광주지만 무용 부문 성적표도 초라하다. 지난 한 해 열린 무용 공연 건수는 광주 25건, 전남 17건으로 제주(4건), 강원(10건), 충북(13건), 충남(17건)과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전남은 그나마 지난 2010년(공연 건수 22건)보다도 공연 건수가 하락했다.

◇활발한 국악 공연으로 그나마 갈증 해소=지난해 전남에서 모두 163건의 국악 공연이 열려 서울(667건), 전북(270건)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광주도 120건의 국악 공연을 올려 6위에 올랐다. 인구 10만명당 국악 공연 건수도 전남은 8.5건으로 2위, 광주는 8.2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2187건의 국악 공연이 열리는 등 상설·장기공연 등으로 양적인 증가가 이뤄졌다.

특히 전남은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다. 전남 지역의 경우 지난 2009년 90건의 국악 공연이 열린 뒤 2010년 11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63건의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광주는 2009년 53건에서 2010년 22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120건으로 급증했다.

지역 관련 통계를 따로 내지 않은 문화 부문의 경우 지난해 전국에서 발행된 4만4036종의 신간 도서 중 아동(9546종), 문학(8184종), 만화(6433종), 사회과학(5919종)의 순이었고 어학, 학습참고서 분야는 인터넷 방송의 확대 등으로 감소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해 열린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페스티벌 오! 광주-정음성 축제’ 25~28일 광주문예회관

‘한중문화교류의 밤’ 의미 더한다

‘페스티벌 오! 광주-정음성 축제’가 25일~28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등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중국 지휘자 리 신차오 등 유명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가지며 광주에서 첫선을 보이는 오스트리아 마리오네트 인형극도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축제는 한중 수교 20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한중문화교류의 밤을 준비, 의미를 더한다.

페스티벌 첫날인 25일(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는 중국 국립교향악단 음악감독이자 중국 국립음악원 교수인 리 신차오(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가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지휘봉을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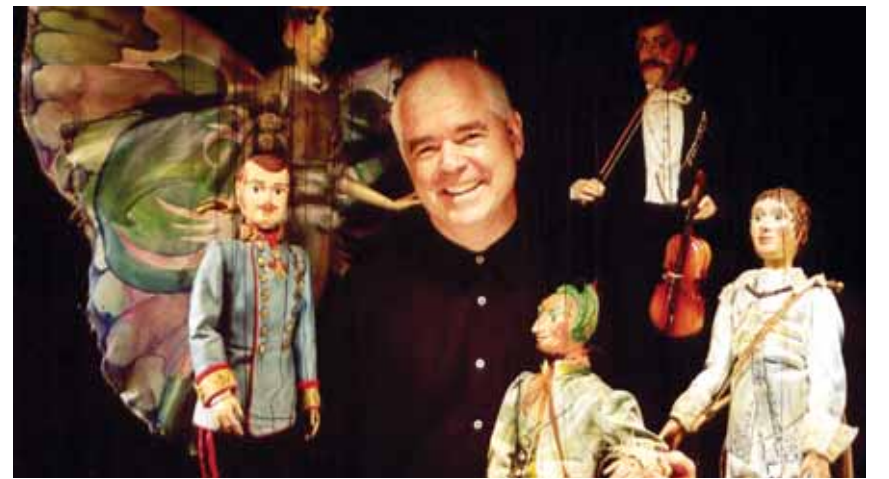
리 신차오는 지난 22일부터 광주시향과 연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연 레퍼토리는 보로딘의 ‘폴로베츠 사람들의 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잠미의 기사 모음곡’ 등이다.

수교 20주년 기념, 국립교향악단 리 신차오 시향과 무대

MIK 앙상블 공연... 정음성 국제학술세미나도 열려

협연자로 참여하는 클라라 주미 강은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을 연주한다. 그밖에 올해 열린 2012 광주음악콩쿠르 1등상 수상자인 소프라노 윤상아가 사르파티에의 오페라 ‘루지’ 중 ‘그날 이후’와 정음성곡 ‘연수요’를 들려준다.

26일 오후 7시30분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는 2003년 창단된 유명 실내악 그룹 MIK 앙상블이 공연을 갖는다. 피아니스트 김정원, 첼리스트 송영훈, 비올리스트 김상진 씨 등 10년 인연을 맺어온 기존 멤버 외에 이번 공연에는 쿠세비츠키 더블베이스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한 더블베이스 연주자 성민제씨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한다.



마리오네트 인형극 ‘모차르트 마술피리’

연주레퍼토리는 슈베르트의 ‘비올라와 더블베이스를 위한 군대 행진곡’,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곡 송어’, 슈만의 ‘피아노 4중주곡 작품 47’ 등이다.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두차례 열리는 마리오네트 인형극 ‘모차르트 마술피리’



김정원

클라라 주미 강

피리(오후 2시·6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세계 대표적인 마리오네트 극장 중 하나로 세계인형예술축제 1위를 수상한 오스트리아 쉐부룬궁 마리오네트 극장 작품으로 칼 뵘이 지휘봉을 잡은 베를린 필 하모니코 리아스 실내합창단의 음반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된다.

특히 오후 2시 프로그램에는 재단이 공연 관람이 어려운 8세 미만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벤트에 선정된 500여명이 공연을 관람한다.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2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는 소프라노 손숙경·오송하·김선희·김미옥, 테너 김백호·김성진,

바리톤 이은철씨와 중국 산시성 ‘아름다운 시절’ 여성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정음성가곡 연주회가 열리며 오후 6시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는 중국 허난성 예술단 초청, ‘한중문화교류의 밤-황하의 바람’이 진행된다.

그밖에 26일 오전 10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에서는 정음성 국제 학술 세미나도 열린다.

티켓 가격은 2만원, 1만5000원, 1만원이며 티켓 판매 사이트 인터파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23일 현재 광주시향 공연은 540매, MIK 앙상블 공연은 250장 정도가 팔렸다. 문의 062-670-746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음악으로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무지크바움 앙상블 연주회, 26일 금호아트홀

무지크바움 앙상블 연주회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의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피아노 4중주 C장조’, 말러의 ‘피아노 4중주곡 A단조’ 프랑스의 ‘피아노 4중주 3번 C단조’ 등이다.

피아니스트 구재향(호남신학대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박다연(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비올리스트 신정문(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수석 단원), 첼리스트 이지현(호신대 등 출강)씨로 구성된 무지크 바움은 지난 2004년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재향

신정문

그룹 이름 ‘무지크바움’은 독일어로 ‘음악 나무’를 뜻한다. 문의 010-2604-16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 / 제 / 집 / 중 / 안 / 손 / 에 / 잡 / 히 / 는 / 대 / 능 / 한 / 자 / 외 / 국 / 어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쏙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만점 포켓북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알짜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외국인 필수 각권 7,000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외국인 필수 각권 6,000원

한자능력검정 시험 시리즈 대능한자연구회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성어백과

알짜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 상황별 핵심 문형과 활용단어 구성
·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 교육부 지정 필수 단어 수록
·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팁과 응용회화로 구성

진검승부 한자능력검정 시험 시리즈
· 급수별 한자색인, 다양한 활용단어 수록
· 예상문제를 통한 기출문제의 상황, 학습성취도 평가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성어백과
대신·임시·한자능력검정시험 및 국가직 기출문제 포시
알짜배기 고사성어백과 값 8,500원

대표전화 :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